

‘고용유지지원금’ 끊긴 여행·관광업계 비명... 묘수 없는 정부

지난달부터 지급기간 만료 업계 순차 도래 내년부터 지원금 가능하지만... “더 못 버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이달 들어 최악의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만료되면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업계는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

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 3월 특별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 등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휴업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유급휴업 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1일 최대 7만원) 지급한다. 당초 지급기간은 연 180일(6개월)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60일 추가 연장돼 연 240일(8개월)로 늘어났다.

특별업종 중에서도 여행·관광 업계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며 유급휴업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미 지난달을 시작으로 지원금이 끊긴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급휴업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 지원금 90%를 받아도 사업주가 부

담해야 하는 나머지 10%조차 현재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원금 종료 앞두고 지난 10월말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고용유지 등이 가능한데, 그나마 3월부터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사장이 알바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실정이다. 사업체를 유지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당장 지원금 공백이 발생하면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은 지난달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180여명에 달했던 인력을 20여명으로 감축했다. 1982년 문을 연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웨라튼팔레스호텔은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만 참고 이 기간 무급휴직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제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업계가 이 같은 ‘결단’에 나선 것은 향후 코로나19 전망 등을 봤을 때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일정 기간 유급휴업을 하면 사업주 부담 없이 평균임금의 50%(1일 최대 6만6000원)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180일(6개월)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

은 “그간 지원금을 받으며 근근히 버텨온 게 1년이다. 되돌아보니 호텔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이에 아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이나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는 업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여행사 1위인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3월부터 유급휴업을 시행한 데 이어 6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이 종료됐어도 유급휴업 한도가 남아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없는 무급휴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정부는 업계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미희기자



광주김치 쇼핑몰 오픈...오늘부터 운영 9개 업체가 묵은지·갯살김치 등 15종 판매

남도의 맛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김치’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광주김치 쇼핑몰(<http://k-kimchi.kr>)이 7일부터 운영된다.

쇼핑몰에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프레첵’, ‘주식회사 김치타운’ 등 광주김치 제조업체 9곳이 참여해 다양한 김치를 선보여 한 자리에서 비교·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김치는 배추포기김치, 묵은지 등 일반 2종과 백김치와 갯살김치, 파김치 등 별미 13종 등 모두 15종이다.

또 쇼핑몰에는 ▲광주김치업체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 특징을 소개하는 업체 전용관 ▲다양한 광주김치를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보고 구입할 수

있는 포기김치, 묵은지, 별미김치 구입 코너 ▲업체별 베스트상품을 알 수 있는 인기 최고 김치 ▲맛있는 광주김치를 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알뜰김치 등이 운영된다.

광주김치 쇼핑몰은 주요 검색포털에서 ‘광주김치’를 검색하거나 온라인 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구매는 7일부터 가능하다.

박남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4일 “광주김치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하면서 전국 누구나 다양한 광주김치를 하나의 쇼핑몰에서 비교한 뒤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김치의 맛과 품질이 더 많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광주김치의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제일건설(주), 목포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지상 최고 27층 5개 동·총 404세대 규모... 전 세대 전용 105㎡ 대형 평형

제일건설(주)은 4일 목포시 석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는 목포시 석현동 668-1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5개 동, 총 404세대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코로나19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는 전용면적 105㎡ 타입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의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내방객의 안전 및 정책의 권고 이행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지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동시에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7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진행되고, 이후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는



목포시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석현동 일대에 조성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리는 뛰어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인근에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며, 녹색로, 백련대로 등을 통해 남악권역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임성리역은 오송-목포로 연결되는 호남고속철도, 목포-부산으로 연결되는 경전선 등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는 전국 각지에서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는 제일건설(주)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돼 주거 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먼저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또한 전 세대가 대형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수납공간 확보가 유리하고, 공간 활용성도 우수하다. 이 밖에도 단지는 대형평면에 걸맞은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는 커뮤니티와 조경설계에도 힘써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채롭고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생태연못과 수목초화가 어우러진 진경산수원과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놀이터 등도 조성돼 쾌적한 단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당 제일풍경채 센트럴퍼스트의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야리 2557번지에 위치한다.

분양문의 061) 282-5111

목포-백정수기자

공실 공공임대, 기본 4년에 수요 없으면 2년 더 거주



정부가 전세대책 중 하나로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실 공공임대’를 기본 4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의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기간의 경우 소득·자산요

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1회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약 만료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수요가 없을 때 2년 추가로 재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서울 5000가구, 지방 2만3000가구 등 전국 3만 9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실 공공임대 주택 물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광주 ‘힐스테이트 첨단’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전용면적 84~134㎡, 39층...회소성 높은 1군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

현대건설은 4일 ‘힐스테이트 첨단’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8 일원에서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4㎡ 총 31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35세대 △84㎡B 140세대 △110㎡A 70세대 △110㎡B 35세대 △134㎡ 35세대 등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약 일정은 12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2일이며, 정당계약은 2021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진행된다.

자격요건은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접수가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첨단은 첨단지구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췄다. 현재 개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중 첨단역(예정)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예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순환선이다.

총 연장 41.8km 구간에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개소로 이뤄진 사업이며, 첨단역(예정)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주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하다.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인근 광산 IC, 산월J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광주제2순환도로 등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첨단지구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상품에도 공을 들였다. 우선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통풍이 용이하며, 판상형과 탑상형 등 다양한 구조를 선보이며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택형 별 크린 현관창고와 드레스룸, 알파룸, 서재 등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이밖에 같은 평형에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주방과 알파룸 또는 침실4를 활용용 팬트리룸을 넓히는 주방수납 강화형, 침실2와 3을 활용한 침실수납 강화형, 침실1과 알파룸을 활용한 침실통합형 등의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하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의 건강을 고려한 운동시설이 도입돼 단지 내에서 다채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 기술도 적용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공동현관 자동문 무선인증 출입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1899-1686

김민정기자